

“美·유럽 현지보다 인천공항 검역과정서 감염 위협 느껴”

유학생들 “비행기·경유지·공항 내 감염 우려”

마스크 쓰면 이상한 사람 취급…인식차이 한 몇

“오히려 한인들의 경우 한국 기사를 꼼꼼히 살펴보고 개인 위생에 더 철저히 하는 편이에요. 다만, 현지에서는 마스크를 쓰면 아픈 사람으로 보는 인식이 강해 안 쓰는 사람이 많아요. 감염에 더 취약할 수 밖에 없죠.”

얼마 전 미국 동부에서 귀국한 유학생 A씨(25)는 최근 국내에서 해외 유입 확진 사례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해외 거주하는 한인들은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감염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현지 분위기가 인식 차이 등으로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지난 31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125명 증가한 978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공항 검역 과정에서 양성 확인된 확진자는 15명 추가돼 총 21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5일 101명을 기록한 이후 6일만에 2배 증가한 수치다. 더구나 입국 후 국내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는 지역 내 해외유입 사례도 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유학생의 경우 유행 기숙사 폐쇄 등으로 귀국 러시가 이어지며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서울시만 봐도 지난 21~28일 일주일간 해외 접촉

관련 확진자 45명 중 절반 가까운 20명이 유학생들이었다.

유학생들은 해외 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한국과 달리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이나 의료대응 등에서 인식차이가 크다는 견해를 밝혔다.

캐나다 토론토에 거주 중인 유학생 B씨(23)는 “한국과 달리 인터넷 문화가 발달하지 않아 대부분 사람들이 뉴스를 쉽게 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무엇보다 마스크는 아픈 사람 혹은 의료 종사자만 쓴다는 인식이 있어 예방을 위해 쓰더라도 안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환자 대응 방법에서도 한국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에서 의학을 공부 중인 C씨(29)는 “진단검사를 받고 무증상으로 2주의 격리조치가 내려져도 이곳 사람들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라며 “검사도 중병 환자들을 우선 검사하고 그 외 사람들에 대한 검사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미국, 유럽 현지에서도 동양인들처럼 마스크를 의무착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자배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의 주요 감염통로가 입에서 나오는 비말이고 무증상인 사람도 많아 건강한 사람도 마스크를 써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뉴욕타임스(NYT)도 지난 28일 (현지시간) ‘더욱 많은 미국인들이 보호를 위해 마스크를 써야 할 수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하면서 전문가들은 건강한 사람들도 외과용 마스크, 혹은 스카프라도 써야 할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내로 들어오는 유학생 등 해외 입국자가 물리면서 비행기나 공항 내 감염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부 유학생은 현지 공항에서 출국 시 발열 체크 등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입국한 교환 학생 D씨(21)는 “밴쿠버발 비행기 탑승 전 승무원들이 체온계는 들고 있었지만 탑승객 모두를 재지는 않았다”며 “체온이 궁금해 재달라고 하지 않는 이상 선택사항인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인천공항 입국 과정에서 검역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영국에서 입국한 교환학생 E씨(24)는 “현지에서보다는 경유지에서, 경유지보다는 인천공항 검역줄에서 감염 위협을 크게 느꼈다”며 좋겠다”고 말했다.

“유럽발, 미국발 승객들이 함께 앞뒤로 붙어 줄서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유학생들은 최근 자가격리 지침을 어겨 비판을 받고 있는 일부 유학생들의 부적절한 행태를 인정하면서도 전체 유학생들을 코로나19 사태 악화의 한 원인으로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앞서 강남구 거주 한 미국 유학생은 입국 후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유증상 상태로 4박5일간 제주여행을 다녀와 논란이 일었다.

앞서의 C씨는 “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 들어온 뒤에도 대부분 자가격리를 하며 최대한 피해를 주지도 받지도 않으려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다”며 “단순히 외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유학생이 확진자 증가의 한 원인으로 치부되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학교는 언제가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학교 휴업이 장기화 된 지난 31일 경남 거창군 거창읍의 한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이 걸어가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4월 9일부터 유치원을 제외한 전국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각종 학교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거리두기 잊은 상춘객들에 제주 유채꽃밭 일찍 갈아엎는다

예년에 비해 보름 빠른 4월 초 전후해 파쇄 예정

제주의 대표 봄꽃 명소로 꼽히는 서귀포시 가시리 녹산로 일대 유채꽃밭이 4월 초를 전후해 조기 파쇄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에도 봄나들 이를 즐기려는 상춘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연간 1600명이 찾는 제주유채꽃축제가 열리는 녹산로는 만개한 벚꽃과 유채꽃을 한 번에 즐길 수 있어 봄이면 상춘객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올해 유채꽃축제는 코로나19 여파로 일찍이 취소됐지만, 만개한 꽃들을 따라 관광객과 도민들이 몰리면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축제가 진행되는 유채꽃 광장

인근에서 고수원을 운영하는 김모씨(54)는 “이번 주말에는 차량들로 도로가 꽉 막힐 정도였다”며 “코로나 확진자가 들르진 않을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다”고 우려했다.

연간 1600명이 찾는 제주유채꽃

축제가 열리는 녹산로는 만개한

벚꽃과 유채꽃을 한 번에 즐길 수

있어 봄이면 상춘객들의 방문이

이에 따라 가시리마을회는 서귀포시에 유채꽃 조기파쇄를 건의한 상태다.

가시리 관계자는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주민들 사이에 코로나19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예년보다 보름 정도 빨리 파쇄해달라고 서귀포시에 요청한 상황”이라며 “늦어도 4월 10일 전후로 파쇄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관계자 역시 “얼마 전 가시리와 파쇄 관련 협의를 진행했고, 방문객 추이나 동향을 지켜본 후에 4월 초쯤 다시 논의를 거쳐 파쇄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창군, 무장면에 최첨단 스마트농업 원예단지 조성

내년까지 총 61억원 투입…온실 현대화 기반시설 확충

전북 고창군 무장면 일원에 최첨단 스마트 원예단지가 조성된다.

지난 31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인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에 최종 선정돼 국비 43억원을 확보했다.

군은 무장면 옥산리 일원 25ha에 내년 말까지 국비(70%)와 지방비(30%)를 포함한 61억원을 투입해 스마트팜 기반조성을 위한 도

로화충, 용배수로 개선 사업 등을 진행한다.

이 사업으로 비닐하우스 밀집 지역 내 노후온실의 현대화, 자동화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시설 개보수를 지원해 규모화된 최첨단 스마트 원예단지로 탈바꿈 할 예정이다.

오유나 기자

창원시, 창원사랑상품권 ‘누비전’ 10% 특별 할인 6월 말까지 연장

경남 창원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창원사랑상품권 ‘누비전’의 특별할인

판매기간을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당초에는 3월 말까지 10% 특별 할인 행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

나, 열어붙은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누비전 특별 할인 기간을 6월 말까지로 연장한다.

경기 고양문화재단은 오는 4월 3일까지 클래식 음악 및 오페라 등의 공연 영상을 인터넷 유튜브 서비스로 감상할 수 있는 ‘고양문화재단 렌선상영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렌선상영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자진 시민들에게 문화향유를 제공하고 위로와 격려를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 그동안 고양아람누리에서 진행

된 공연들의 녹화 영상을 ‘고양문화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보여주는 형태로 이뤄진다.

지난 30일 오후 3시 고양시교향악단과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파가니니 바이올린 협주곡 1번, D장조)의 무대를 시작으로, 31일 오후 3시 고양시교향악단(브리스 교향곡 4번), 4월 1일 오후 3시 고양시교향악단과 피아니스트 원재연(라벨 피아노 협주곡 G장조)의 공연이 이어진다.

충북교육청 유치원 온라인놀이터 ‘i-놀이학교’ 운영

충북도교육청은 유치원에 가지 않아도 가정에서 학습과 놀이를 할 수 있는 온라인 놀이시스템 ‘i-놀이학교’를 개통해 운영 중이라고 지난 31일 밝혔다.

‘i-놀이학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유치원과 학교 휴업이 길어짐에 따라 학습과 돌봄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

난 27일 개통했다.

이 시스템은 유치원 현장지원 컨설팅단이 참여해 △i-놀이 ON 지원 △i-놀이 OFF지원 △i-놀이 학부모지원 △i-놀이 나눔방으로 구성했다. ‘i-누리’ 포털과 연동해 개정누리과정 관련 정보도 확인할 수 있으며, 유아발달에 적합한 놀이 안내부터 학부모 도움 자료까지

여러 내용이 담겼다.

긴급돌봄 지원을 위한 놀이사례, 온라인 교육활동 우수사례도 안내해 가정에서도 온라인 학습과 놀이를 실천하는데 도움이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 ‘i-놀이학교’ 개통으로 긴급돌봄과 개정누리과정 관련 정보도 확인할 수 있으며, 유아발달에 적합한 놀이 안내부터 학부모 도움 자료까지